

지식의 시대: 암묵지(tacit knowledge)가 필요한 이유

“오늘날 ‘지식의 시대’를 견인하는 리더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영역 전문성을 넘어선 ‘통찰’이다.
세상의 현상들을 다층적으로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는 직관과 안목이 필요한 것이다.”

야후는 웹 상에서 매일 12테라바이트 이상의 자료를 수집한다. 이것은 미 의회 도서관이 200여 년에 걸쳐 모은 장서 전체의 절반 이상 규모로 실로 엄청난 양이다. 1테라바이트 하드 드라이브 가격이 400달러 정도임을 감안할 때 이것은 일반 금속을 황금으로 만드는 연금술과도 같은 것이다. Data와 정보들이 각종 지식으로 산출된다는 점에서 실로 우리는 주체할 수 없는 지식의 바다에 빠져있는 것과 같다.

하지만 명시적 지식(declarative knowledge)은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명확한 한계를 지닌다. 왜냐하면 우리가 직면하는 문제들은 단선적이지 않으며, 다양한 환경적 요인들에 의해 복합적으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명시적 지식의 양적 결합만으로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효과적일 수 없다.

따라서 오랜 시간 동안 경험을 통해서 체화된 암묵적 지식(tacit knowledge)이 필요하다. 생생한 리얼리티 속에서 직관과 통찰의 원천(source)으로 힘을 발휘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조직에서 가지고 있는 많은 경험지식들을 어떻게 구성원들에게 암묵지화 시켜내느냐 하는 것이 조직개발 차원에서 중요한 이슈가 되는 이유다. 개인적 수준의 문제해결능력이 곧 조직의 지식차원으로 증폭되기 때문이다. 이를 지식의 승화(knowledge spiral)라고 할 수 있으며, 이것이 거듭되면 조직은 실존적 수준(ontological level)에 오르게 된다. 오랜 시간 동안 구축된 조직 문화도 곧 암묵지의 한 형태이며, 조직의 창의성이나 위대한 성공, 결정적 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만들어 내는 대응능력 등을 가르는 핵심 요소(critical factor)가 된다.

오늘날 ‘지식의 시대’를 견인하는 리더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영역 전문성을 넘어선 ‘통찰’이다. 세상의 현상들을 다층적으로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는 직관과 안목이 필요한 것이다. 끊임없이 직면하는 현실의 도전 속에서 명시적 지식(declarative knowledge)들을 암묵적 지식(tacit knowledge)으로 체화 시켜내고, 그 속에서 개인과 조직의 존재적 가치를 높여 나갈 때 조직은 실존적 수준(ontological level)에 오르게 된다.



James Roh

Written by C.E.O 노상충 (James Roh)

